

한국광학기기협회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2009년 사업 예산 확정 및 신입 임원 선임-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제22차 정기총회가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르네상스호텔 토파즈 룸에서 열렸다.

총회는 박종우 회장의 개회 선언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전심의에 들어가 200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결,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2008년도 잉여금 처분(안), 신입 임원(회장) 선임, 200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종우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협회총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한 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환율상승이나 원자재가의 폭등으로 이어져 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으나 힘들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등 상호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안전 심의에서 본 협회 이택희 부회장은 2008년도 협회의 사업보고를 통해 전년도에 회원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총 10개사로 이중 정회원이 7개사, 특별회원이 3개사이고 임의탈퇴와 제명업체가 총 13개사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보고에서는 전략기술개발사업, 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 국내외 전시사업, 광학관련 표준화사업 등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중 2008년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개념 레이저 기반 초정밀·초고속 레이저 가공시스템 개발(제출업체 : 이오테크닉스)의 추진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현재 기획위원회 구성 후 기획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작성하여 최종 전략기술개발사업 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이 유력시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밀광학기술



▶한국광학기기협회의 제22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 서울르네상스호텔 토파즈 룸에서 열렸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초정밀광학산업의 기초 및 응용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장형 교육을 통해 5년간 4,50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 성과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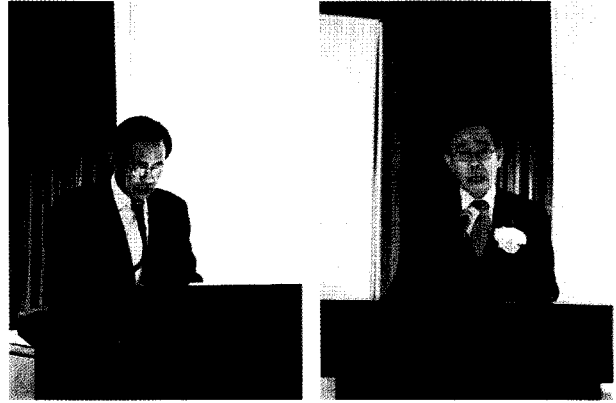
한편, 정관에 의거하여 임원사중 가장 연장자인 이오시스템의 이원승 회장이 임시의장으로서 진행한 임원선임 건에서는 만장일치로 삼성디지털이미징(주) 박상진 대표의 선임이 결정됐다. 또한 신입 이사로는 삼성전기(주) 박종우 대표가 선임됐다.

본 협회 이택희 부회장의 설명으로 진행된 2009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기본 방향을 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강화, 국내외 전시사업 지원 확대, 회원사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등으로 잡고 세부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광학산업 기술기반 확충을 위해 2009년에는 광학업체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정밀광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현재 진행 중인 전략기술개발사업(신개념 레이저 기반 초정밀·초고속 레이저 가공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박종우 전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박상진 신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탁회 상근부회장의 진행으로 협회 사 ▶감사보고서를 낭독중인 노원복 감사. 업보고가 있었다.



▶박종우 전 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학센터의 이윤우 센터장 (사진 왼쪽)



▶박상진 신임 회장이 회원사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감사패를 박종우 전 회장에게 증정하고 약수를 나누고 있다.

정부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한일광학산업 기술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광학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PMA 2009' 등 해외 전시회에 많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4월에 국내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광학관련 표준화연구사업과 광학 및 광학기기(TC172) 국제표준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각 업종별 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한 업계 이익증진을 도모해 나가고, 광학관련 해외자료 번역 및 책자 발간 배포, 협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통한 광산업 정보제공 및 DB기반 구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은 「광학세계」의 질적 보장 및 배포처 확대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박상진 신임회장은 인



▶박종우 전 회장의 건배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이 협회 및 회원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했다.

사말을 통해 “본 협회 회장으로 선임해주신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3년간의 재임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며 “앞으로 협회 집행부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여 협회와 산업계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